KLI PANEL Brief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 **편집인** 장인성 |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패널브리프 제21호(2022-02)**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

권익성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wonis87@kli.re.kr)

KLI PANEL Brief

• 한국노동패널 1~24차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현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23차(2020년)에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실직 전 2년간의 일자리가 모두 상용직이었던 경우를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로 정의하여 분석함.

•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이하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5.8%로 고용이 안정적이었던 근로자(이하 상용직)의 약 65% 수준에 불과함.
-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살펴본 결과, 상용직의 주된 비신청 사유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나타남.
-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경험 비중은 임시·일용직이 74.8%로 상용직보다 10.6%p 높게 나타났고, 재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임시·일용직 7.7개월, 상용직 8개월로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임시·일용직의 절반 이상인 52.0%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재취업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며, 61.3%는 재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시·일용직)이며, 23.2%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됨.
-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 확대 등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배경 및 목적

- 실업급여는 수급요건[1]을 갖춘 실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2021년 기준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2.6%에 그쳐 이들은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2]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④ 적극적 구직 노력 수행임.

2)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1.10.26.

- 이 글의 목적은 한국노동패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현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임.
-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은 종사상 지위[3]에 따라 구분했으며, 실직 전 2년간의 일자리가 모두 상용직이었던 경우를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로 정의하고(이하 상용직이라 함),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이하 임시·일용직이라 함)로 구분하여 분석함.[4]

2. 분석자료 및 표본

• 한국노동패널 1~24차 학술대회용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23차(2020년)에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과거 2년간 일자리를 가졌던 경험이 있는 18~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함.
- 실직 시점(23차)을 기준으로 실직 2년 전 조사부터 실직 1년 후 조사까지 총 4개 차수에 모두 응답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실직 사유가 정년퇴직인 경우는 분석표본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실업자와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석표본은 각각 863명으로 구성된 4개 차수의 균형패널로 총 3,452개의 표본임.
- <표 1>에서 분석표본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분석표본의 57.1%로 남성보다 비중이 높으며, 실직 당시 평균연령은 44.9세, 학력별로 고졸 이하 비중은 54.1%로 전문대졸 이상보다 높음.
- 전체 분석표본의 84.4%는 실직 전 2개 차수에서 한 개의 일자리만 가졌으며, 15.6%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여러 일자리를 가짐.

〈표 1〉 분석표본의 인적 특성

(단위 : 명, %)

		빈도 (비중)
성별	여성	493 (57.1)
	남성	370 (42.9)
실직 당시 연령대별 (평균 44.9세)	30세 미만	110 (12.8)
	30세 이상 50세 미만	419 (48.5)
	50세 이상	334 (38.7)
학력별	고졸 이하	467 (54.1)
	전문대졸 이상	396 (45.9)
실직 전 2년간 보유 일자리 개수	1개	728 (84.4)
	2개	133 (15.4)
	3개	2 (0.2)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3)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일 단위 근로자를 의미함.

4)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자료를 활용해야 함. 하지만 개인용 자료는 주된 일자리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며, 일자리 단위로 실업급여 수급 정보를 알 수 없음. 이 글은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일자리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력 자료를 사용했으며, 고용안정성의 척도는 종사상 지위를 사용함.

3.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근로자 특성

- 23차(2020년)에 실직한 임금근로자 중 실직 전 2년간의 일자리가 모두 상용직이었던(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는 전체 분석표본의 64.1%임(표 2 참조).
  - <표 3>은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인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상용직은 성별 비중이 비슷하지만, 임시·일용직은 여성이 63.7%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실직 당시 평균연령은 상용직 42.1세, 임시·일용직 44.1세로 상용직이 약 2.0세 낮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30세 미만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전문대졸 이상이 57.6%, 임시·일용직은 고졸 이하가 62.9%를 차지해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학력에 차이를 보임.

〈표 2〉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근로자 비중

(단위 : %)

	비중
상용직	64.1
임시·일용직	35.9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표 3〉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인적 특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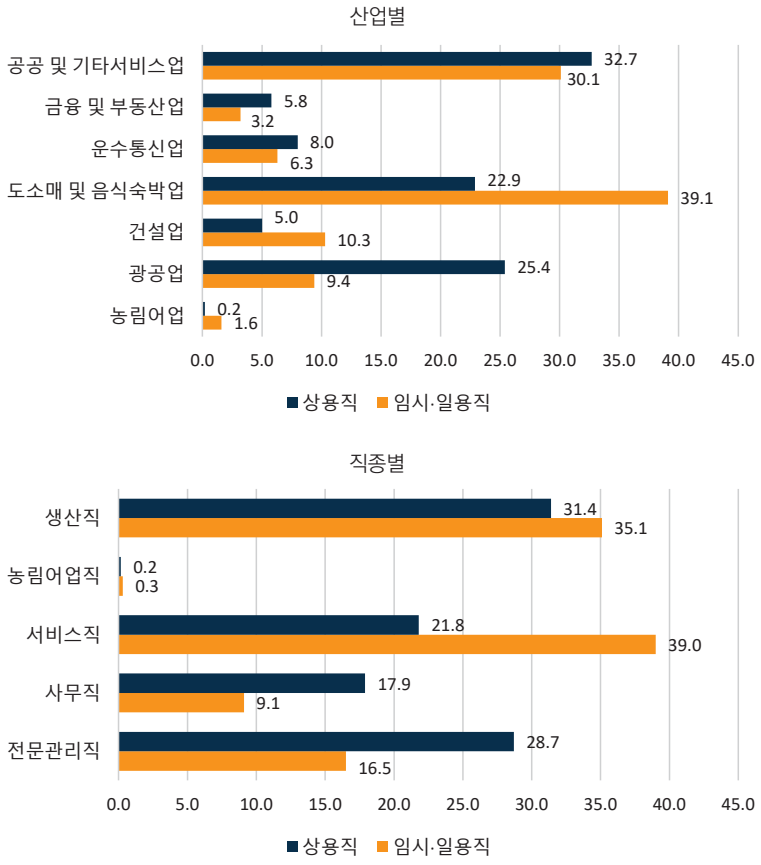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일용직
성별	여성	51.0	63.7
	남성	49.0	36.3
실직 당시 연령대별	평균연령(세)	42.1	44.1
	30세 미만	17.5	21.6
	30세 이상 50세 미만	51.4	37.3
	50세 이상	31.1	41.1
학력별	고졸 이하	42.4	62.9
	전문대졸 이상	57.6	37.1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그림 1]은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종사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우선 산업별로 상용직의 32.7%는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이며, 임시·일용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39.1%로 각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각각 건설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임.
  - 다음으로 직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직이 31.4%, 임시·일용직은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서비스직이 39.0%로 각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종사자 비중

(단위 : %)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4.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률

-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함(표 4 참조).
  - 전체 실업급여 수급률은 21.3%이며, 실직 전에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상용직 근로자의 24.3%가 실업급여를 수급했지만, 임시·일용직(고용이 불안정했던)은 15.8%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함.
  - 이를 통해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이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함.

〈표 4〉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률

(단위 : %)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체
실업급여 수급률	24.3	15.8	21.3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표 5>는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률을 성별·연령대별로 나타낸 것으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여성과 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은 양상을 보임.

- 성별로 실업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각각 30.3%, 16.9%로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여성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남성 상용직보다 12.2%p 높아 실직 전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연령대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50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높고,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낮은 유사한 특징을 보였는데, 특히 30세 미만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6.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잦은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5〉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성별·연령대별 실업급여 수급률

(단위 : %)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체
성별	여성	30.3	16.9	24.8
	남성	18.1	14.0	16.9
실직 당시 연령대별	30세 미만	12.7	6.9	10.3
	30세 이상 50세 미만	22.7	12.6	19.8
	50세 이상	33.7	23.5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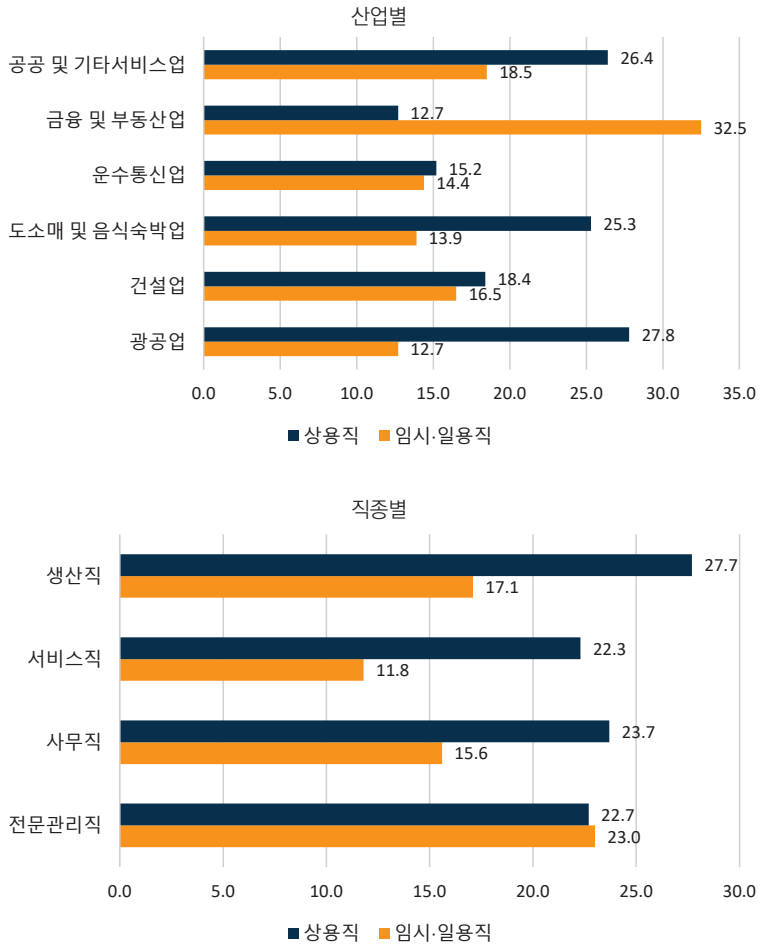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률을 산업별·직종별로 살펴보면(그림 2 참조).

- 우선 산업별로 실직 전 광공업에 종사한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27.8%로 상용직에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은 금융 및 부동산업이 32.5%로 가장 높으며, 이는 상용직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상용직은 12.7%).
- 직종별로 전문관리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상용직 22.7%, 임시·일용직 23.0%로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률의 격차가 거의 없음.
- 한편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직종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임시·일용직은 큰 격차를 보였는데, 특히 서비스직은 임시·일용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임에도(그림 1 참조),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문관리직의 절반 수준인 11.8%에 그침.

[그림 2]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실업급여 수급률

(단위 : %)



주 : 1) '농림어업' 산업과 '농림어업직' 직종은 실업급여 수급 표본이 없어 제외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임.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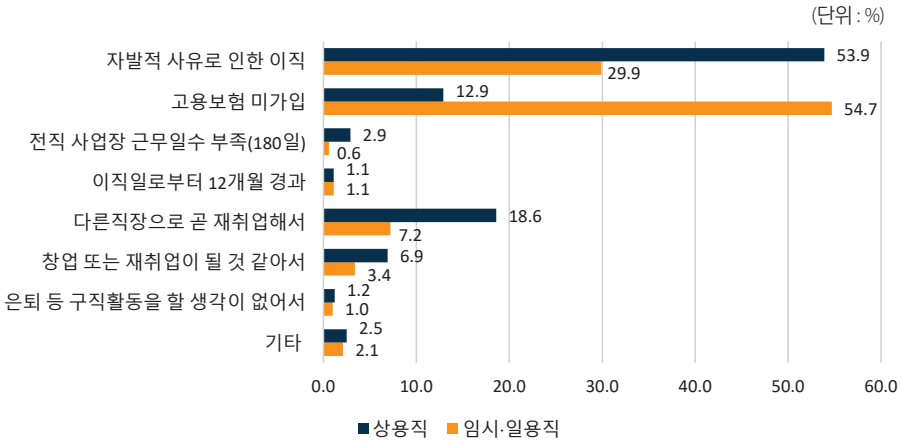
5.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 다음으로 [그림 3]에서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주된 비신청 사유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5)]

- 실업급여 비수급자 중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상용직)의 53.9%는 '자발적 이직',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임시·일용직)의 54.7%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비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임.

5) 직업력 변수 j616을 활용한 것으로, 23차년도 조사부터 실업급여 비신청 이유 중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를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전직 사업장 근무 일수 부족(180일)', '이직일로부터 12개월 경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세분화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이 변경됨.

[그림 3]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주 : 1) 기타는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중 '있는지 알지 못해서', '있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몰라서', '실업급여 액수가 너무 적어서 별 도움이 안되므로', '신청한다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서'를 합한 비중임.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또한 임시·일용직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86.3%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으며, 이는 상용직 70.8%에 비해 높은 수준임.[6)]
- 이를 통해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함.[7)]

• <표 6>과 <표 7>에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성별·연령대별로 살펴보면,
- 상용직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 비중은 81.1%로 남성보다 19.7%p 높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이 비신청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남성(8.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상용직의 20.8%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상용직 연령대에서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를 통해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높았음에도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에 격차가 있으며, 특히 여성과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함.
- 한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중이 30세 미만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임시·일용직의 거의 대부분인 97.0%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층의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기 때문임을 확인함(표 5 참조).

6) [그림 3]에서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전직 사업장 근무일수 부족', '이직일로부터 12개월 경과'한 사유를 합한 비중임.
7)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임(단,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표 6〉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성별 주요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단위 : %)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상용직	여성	59.8	17.5	81.1
	남성	48.5	8.6	61.4
임시·일용직	여성	33.7	54.6	88.7
	남성	23.6	54.9	82.4

주 : 1)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비중은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중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전직 사업장 근무일수 부족', '이직일로부터 12개월 경과'를 합한 비중임.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표 7〉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연령대별 주요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단위 : %)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상용직	30세 미만	68.8	10.0	85.0
	30세 이상 50세 미만	53.6	10.0	66.6
	50세 이상	43.0	20.8	68.3
임시·일용직	30세 미만	41.2	55.7	97.0
	30세 이상 50세 미만	26.4	55.7	83.0
	50세 이상	26.6	52.9	83.0

주 : 1)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비중은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중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전직 사업장 근무일수 부족', '이직일로부터 12개월 경과'를 합한 비중임.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표 8>에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 운수통신업에서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은 12.5%로 낮은 수준이며, 82.6%가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는 임시·일용직의 주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가 고용보험 미가입인 점과 다른 양상임.
- 건설업에서는 상용직의 1.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시·일용직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인 66.9%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함.
- 이는 계절 및 경기적 요인으로 잦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임시·일용 건설업 종사자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됨.
- <표 9>에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은 서비스직에서 29.2%,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사무직에서 임시·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함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이 30.7%로 임시·일용직의 다른 직종과 비교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8〉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산업별 주요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단위 : %)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공공 및 기타 서비스업	57.4	22.4	10.8	53.2
금융 및 부동산업	27.8	0.0	44.7	57.8
운수통신업	51.2	82.6	23.5	1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4	30.3	15.1	62.8
건설업	68.3	13.1	1.7	66.9
광공업	58.5	40.5	3.2	37.5

주 : 1) 표에는 두 개의 주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만 제시함.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표 9〉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직종별 주요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

(단위 : %)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 미가입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생산직	50.4	28.6	9.9	52.1
서비스직	45.2	30.2	29.2	63.6
사무직	59.1	51.1	11.6	30.7
전문관리직	61.0	20.0	5.0	49.8

주 : 1) 표에는 두 개의 주된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만 제시함.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6.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행태

-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와 재취업 소요기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24차)까지 취업경험 비중을 살펴보면(표 10 참조),
  - 임시·일용직(고용이 불안정했던)의 74.8%는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까지 한 번 이상 취업을 경험했고, 상용직(고용이 안정적이었던)은 64.2%가 취업을 경험함. 즉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까지 취업경험이 없는 비중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남성 취업경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30세 미만의 취업경험 비중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경험 비중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 하지만 이는 실직 후 가진 모든 일자리를 포함한 결과로, 근로계약 기간이 짧은 일용직은 단기간 내의 재취업 확률이 상용직에 비해 높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10〉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24차)까지 취업경험 비중

(단위 : %)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체		64.2	74.8
성별	여성	62.6	70.2
	남성	66.6	85.1
연령대별	30세 미만	73.7	100.0
	30세 이상 50세 미만	64.2	82.1
	50세 이상	61.8	67.6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표 11>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살펴보면,
- 임시·일용직의 재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7.7개월, 상용직은 8개월로,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라 재취업 소요기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남성의 재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여성보다 0.9개월 짧은 데 비해, 임시·일용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재취업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남성 8.1개월, 여성 7.5개월).
-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에서 상용직의 재취업 소요기간은 5.4개월로 상용직에서 가장 짧지만, 임시·일용직은 상용직과 반대로 30세 미만의 재취업 소요기간이 9.9개월로 임시·일용직에서 가장 김.
- 한편 50세 이상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모두 취업경험 비중이 가장 낮고(표 10 참조), 재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각각 9.3개월, 8.3개월로 실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연령대로 나타남.
- 이는 50세 이상 장년층이 주된 직장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긴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8)]

〈표 1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평균 소요기간

(단위 : 개월)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체		8.0	7.7
성별	여성	8.4	7.5
	남성	7.5	8.1
연령대별	30세 미만	5.4	9.9
	30세 이상 50세 미만	7.5	5.8
	50세 이상	9.3	8.3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8)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30세 미만 최대 수급 일수는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 다음으로 <표 12>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별 분포를 실직 전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살펴보았음.

-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재취업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 비중은 상용직이 33.6%, 임시·일용직 52.0%이며, 이는 임시·일용직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임시·일용직의 33.4%는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의 약 1/3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장기실업자로 남는 것을 확인함(상용직은 18.8%).
- 이는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에 비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12〉 실업급여 수급종료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별 분포

(단위 : %)

	0~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상용직	66.4	14.8	14.9	3.9
임시·일용직	48.0	18.6	33.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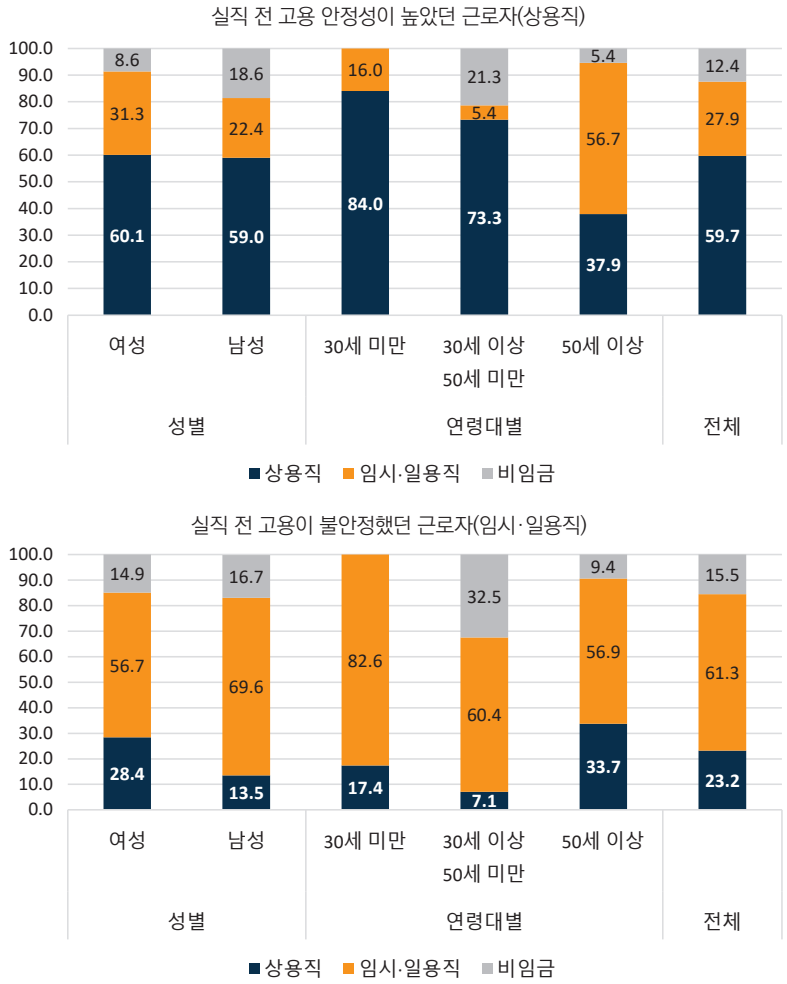
주 :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마지막으로 [그림 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 실직 전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의 59.7%는 재취업 일자리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을 유지했음. 반면 임시·일용직의 61.3%는 재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시·일용직)이며, 23.2%만이 상용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개선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임시·일용직의 69.6%는 재취업 후 여전히 임시·일용직에 머물러 재취업 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비중이 여성(56.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상용직은 30세 미만에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비중이 84.0%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50세 미만은 37.9%만이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임시·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30세 미만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시·일용직)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82.6%로 가장 높으며, 50세 이상의 상용직 전환 비중이 33.7%로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는 자영업 전환 비중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상용직 21.3%, 임시·일용직 32.5%).

[그림 4] 재취업 일자리의 성별·연령대별 종사상 지위(실업급여 수급자)

(단위 : %)



주 : 1) 이직 후 가진 일자리가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함.
2) 18통합표본 개인용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24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7. 요약 및 시사점

-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고용이 안정적이었던 근로자의 약 65% 수준인 15.8%로 고용 안정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률에 격차가 나타남.
  - 임시·일용직(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의 실업급여 수급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6.9%로 다른 연령대의 임시·일용직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임.
  - 또한 직종별로 서비스직은 임시·일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0%로 가장 많지만, 실업급여 수급률은 전문관리직의 절반 수준인 11.8%로 임시·일용직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실업급여 비신청 사유를 살펴본 결과, 실직 전 일자리에서 고용이 안정적이었던 근로자의 주된 비신청 사유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이 불안정했던 근로자의 상당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
-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실업급여 수급자의 61.3%는 재취업 후에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에 머물러,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 확대 등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24차)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경험 비중은 임시·일용직이 74.8%로 상용직보다 10.6%p 높게 나타났고, 재취업 소요기간은 실직 전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한 임시·일용직의 절반 이상인 52.0%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 이후 재취업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직 후 재취업까지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실직 전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근로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짐작됨.[9)]
-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취업 지원 강화 및 실업부조를 통한 생계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임.
-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의 표본 수가 적은 가구패널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후 고용보험DB 등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임.[10)]

9) 실업급여를 수급자 중 실직 1년 후 조사 시점까지 취업경험이 없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03.8일로 상용직 113.9일에 비해 짧고, 평균 법정 퇴직금은 임시·일용직 772.4만 원으로 상용직 1,185.9만 원에 비해 적게 나타남. 따라서 취업경험이 없는 임시·일용직도 취업경험이 있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직 후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10) 2020년 고용행정통계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784,699명이며, 한국노동패널 23차(2020년) 자료는 640,719명(18통합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으로 한국노동패널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행정통계의 약 36%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다른 차수도 고용행정통계의 약 30% 수준으로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분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함.